

오피니언

7

사설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선배에게

졸업식 계절이다. 4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수강신청과 과제, 시험과 발표를 반복하며 보낸 대학 생활의 끝에서 선배들은 이제 '졸업'이라는 이름의 마침표 앞에 서 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순간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장면일지도 모른다. 하나 그 누구에게든 결코 쉽지 않았던 대학 생활을 버텨낸 결과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졸업생 앞에 놓인 현실은 핑크빛이 아니다. 축하 인사와 꽃다발도 잠시 "이제 뭐 할 거야"라는 질문이 뒤를 잇는다. 주변을 둘러보면 인턴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선배가 있고, 졸업 요건을 모두 채웠지만 조금 더 학교에 남기를 선택한 선배들도 많다. 최근에는 그런 선배들을 위해 졸업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졸

업을 유예할 수 있는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기도 했다.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수는 20,356명이다. 2023년 15,055명, 2024년에 17,650이었던 것에 비하면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최근 5년 동안 졸업생 대비 유예생 비율이 8.7% 증가했다. 졸업을 할 수 있음에도 이들이 학교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졸업 뒤에 '취업'이라는 관문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 날씨처럼 취업시장에도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20대 고용률은 하락했고, 졸업 이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60.2%로 2024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20대 고용률이 전년 대비 낮아진 것은 2020년에 이어 5년 만이다.

취업자 수도 3년 연속으로 줄어 들고 있다.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무려 17만 명이 줄어든 344만 명이였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하는 기간은 2020년 10개월에서 지난해 11.5개월로 길어졌다.

기업들은 점점 더 공채를 줄이고,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 공채로 신입을 뽑고, 그 신입을 교육시켜 회사에 필요한 인력으로 키워내기보다 필요할 때 관련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인력을 즉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별다른 경력 없는 '그냥 신입'은 계속해서 회사 문턱을 밟기 어려워지고 있다.

졸업이 곧 답이 되지 않는 시대다. 졸업장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일상이 안정되

는 것도, 앞날이 선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졸업까지의 시간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점이다. 타인이 원하는 것만 좇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성을 찾으려 노력한 시간, 치열하게 방황하고 고민한 시간들은 모두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되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학교를 벗어나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갈 차례다. 그 과정에서 각자의 사정과 속도로 학교에 조금 더 머무르기도 하고, 잠시 돌아가기도 하며, 다시 방향을 정하는 선택은 지금의 시대가 허락한 또 하나의 모습일 것이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음 장을 써 내려갈 선배들의 내일에, 조심스럽지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세시봉

무관심 올림픽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했던 내게 올림픽은 매년 특별한 기억이었다. 도전하며 환호하고, 눈물 흘리는 선수들의 모습은 초등학생에게도 감동이 있었다. 지난 6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지만, 국민을 뭉치고 열광하게 했던 올림픽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JTBC에서 생중계한 새벽 개회식 시청률은 1.8%에 그쳤고, '올림픽' 구글 검색량 역시 4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 흥행 부진 요인으로는 지상파와 3사의 TV 중계권이 없는 것과 8시간의 시차가 거론됐다.

이례적인 무관심 속에도,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8일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김상겸 선수는 4번의 올림픽 도전 끝에 37세에 첫 메달을 얻었다. 우리나라의 올림픽 통산 400호 메달이자, 개인 종목 최고령 메달이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포기하지 않은 결과를 얻은 김 선수는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며 눈물을 쏟았다.

이어 10일엔 18세 고등학생 유승은 선수가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선수 최초로 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었다. 1년을 쉬어야 했던 장기부상에도 보드를 타고 공중에서 네 바퀴를 회전했다.

이재운(스포츠지도학 2025), 김다은(스포츠지도학 2025), 이윤승(스포츠지도학 2025), 이나윤(스포츠지도학 2023), 윤신이(입학예정) 5명의 우리 학교 선수들도 태극마크를 달고 이탈리아로의 도전을 떠났다. 특히 1년 전 우리신문과 인터뷰했던 이재운 선수는 어린 나이임에도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이들은 예전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만큼 열렬한 응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올림픽을 상징하는 구호는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다 함께'다.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다 함께'가 추가되면서 127년 만에 바뀌었다. '다 함께'는 경쟁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대감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다.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줄었는지 몰라도, 다 함께 우리나라를 응원하다 보면 우린 하나가 된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여전히 같은 무대에서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

시야가 트인 방학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유학생 친구를 사귀고 싶어 지난 학기 글로벌교육지원팀의 '글로벌 버디'를 지원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이 생겼고, 글로벌 팀 프로젝트인 SDGs Team Challenge를 알게 됐다. 그것을 계기로 모로코까지 다녀왔다. 완전히 다른 문화를 접하니 너무 새롭고 흥미로워 가슴이 뛰었다. 그곳에서 경험한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의 열기와 사람들의 '느려도 괜찮다'는 한국과 다른 마인드, 그리고 이슬람의 문화들이 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낯설고 두려웠던 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는 '불편하고 낯설었을 것'이라는 내 선입견을 깼다. 무엇보다 일주일 간의 경험을 통해 진로의 방향성을 달리 생각해볼게 됐다. 언어를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복수전공을 고민하게 됐고, 언젠가 문

화 전문 기자나 특파원으로 낯선 세계를 연결하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다.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그냥 지나쳤다면 모로코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 방학만 떠올려봐도 독서와 언어 공부로 시간을 보낸 것이 다였다. 주변의 많은 학생들 역시 자격증 준비나 인턴십, 아르바이트, 여행 등 각자의 방식으로 방학을 채운다.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그러나 캠퍼스 안에도 학생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미래인재센터에서는 방학마다 시나리오 워크숍이나 포토샵, AI 콘텐츠를 제작하는 특강을 연다. 내가 경험한 것은 글로벌교육지원팀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그 밖에도 학과에서 진행하는 전공 연수나 방학 때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다음에 오는 방학엔 '나와 상관없다'고 넘겼던 공지에서 한 줄만 더 읽어보자. 지원 버튼 하나가, 생각보다 멀리 데려다줄지도 모른다. 내 세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만평 방중에도 교내 프로그램은 계속된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